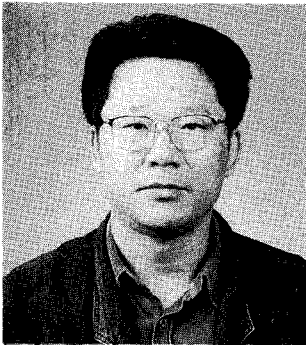


설 - 1년중 진료쉬는 유일한 하루



유 일 준
천안 유일동물병원장

가까운 곳과 먼곳에 사는 형제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차례와 세배, 성묘, 푸짐한 음식상과 술상을 뒤로하고 오후 2시경 빙 둘러 앉은 자리에선 한보그룹 이야기, 정치 이야기, 불경기 이야기가 시들해지자 화제는 자연스럽게 금년도 사슴사육과 녹용, 녹혈 관료에 대하여 이어졌다. (한 구석에선 꼬맹이들이 각자 받은 세뱃돈 액수 비교가 한창이고, 세뱃돈 걸고 윷놀이 하는 녀석들은 신이 나 있고 한 녀석은 받은 세뱃돈 중에서 일부가 없어졌다고 칭얼거리고 ...)

어떻게 해야 빨자를 때 손님이 많이 올것인가?

- 각자의 주장은 대략 아래와 같다.
- 각자 알고 있는 친지를 수요자로 총 동원하자.
- 사슴 목장을 보다 멋지게 꾸민후 손님을 왕 모시는 자세로 서비스 하자 .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자)

○ 홍보용 팜프렛을 만들어 활용하자.- 최고의 보약임과 여성 미용에 탁월하다는 문구를 필히 넣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충북대 교수인 매제에 의해 강력히 제기 되었음. 오늘의 이야기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협조적일수 밖에 없다.

이유인즉- 오후 4시쯤엔 금년도 처음으로 녹용을 자르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공짜로 먹는 날이다.

날이 날인지라 형제들과 사촌, 조카, 생질, 우리애들 (아이구 삼촌과 당숙을 먼저 써야 하는데) 등.

오늘의 참석 총 인원은 26명인데 어른들은 나중에 먹기로 반강제의 합의를 보았고 15세 미만의 7명만 먹기로 했다.

필자의 부모님은 8남매를 두셨고 특히 큰누나는 6공주를 낳고 막내로 한명의 왕자가 있는데 그 유일무이한 왕자는 녹혈을 먹은후 낳았음을 공개해야겠다.

더구나 오늘 자를 녹용의 한쪽은 큰 매형이 몸이 안좋은 것 같아 꼭 가져가야 한다고 선수를 치고 있다. 사슴 주인은 난데 ...!

그 와중에 딸만 둘난 생질이 오늘은 세상없어도 한잔 먹겠다고 무릎을 디밀고 덤빈다. 좌우지간 분위기는 최고의 화기애애!

오늘 어린이들에게 녹혈과 녹용을 제공할 사슴의 신상명세서에 1996년 5월 2일생 엘크 수컷으로 1996년 11월부터 녹용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마치 인공 포유해서 기른 녀석처럼 유별나게 사람을 따르는 녀석이다.

오늘도 다른 새끼 사슴들은 이리 저리로 뛰고 난리인데 마취당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 가족들 앞으로 달려든다. 마취제를 0.7cc 맞은

후 22분만에 곱게 누운 녀석의 눈을 가리고 보정후 각관 부분에 딱끈한 물수건으로 습포 후 준비해둔 전선에 헤어드라이로 다시 가온한 뒤에 외과용 수술톱으로 녹용을 자르니 빨알간 녹혈이 내놓도 뺨고 다섯줄도 뺨힌다. (뒤에선 잘 나온다 잘나와 하는 소리가 들린다) 잘 소독된 녹혈잔에 피를 받고 있는 중에 어떤 꼬마는 안먹겠다고 도망가니 아이를 붙잡으러 가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네가 먼저 먹어, 먼저 먹어』 하면서 엉덩이를 슬슬 밀어대는등 약간 어수선한 중에 조카가 한명 달려오면서 『삼촌전화! 급하데요. 빨리 바꿔 달래』하며 무선 전화기를 들이 민다. 허리를 펴며 『여보세요. 원장입니다.』 『원장이세요. 여기 청양 X X에 있는 ○○○사슴목장인데 우리 종록이 쓰러졌으니 빨리 좀 오세요....』 내용인즉- 10세된 엘크 종록이 2월5일과 6일에 양쪽이 낙각되었는데 평소에는 워낙 힘이 세고 난폭해서 따로 격리 사육중 며칠전 다른 한마리의 엘크가 설사를 심하게 해서 오늘 아침 쓰러진 종록을 다른 무리의 수컷과 합사시키고 설사하는 녀석을 격리사육기 위해 종록이 있던 곳으로 이동 했단다.

합사 첫날은 다른 수컷들이 도망다니고 싸우지도 않아 안심하고 합사 2일과 3일째 낙각이 되었고 어제 저녁까지도 멀쩡했는데 설날 아침에 나가보니 다른 녀석들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 여기저기에 털이 빠지고 상처도 입은채 코와 각관에서 피가 많이 흘렀고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일어나지도 못하고 숨결이 거칠고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 명절날 미안하지만 빨리 오라는 것이다. 특히 작년에 16kg의 녹용이 생산된 놈이니 꼭 살려야 한다고, 탕 내리기는 너무 아깝다며, 이미 응급조치로 감심제와 뼈를 주사하고 깔짚은 충분히 깔아 주었다고....

통화를 마쳤을 때엔 대부분 녹혈을 마시고 먹지 않으려는 조카 두어명이 억지로 먹느라 그 부모들과 실랑이 중인데 큰 누나는 언제 집어 갔는지 녹용 한쪽을 들고 잔 걸음으로 사슴장 바깥문을 나서고 있다.

『일준아 나 갈게』 라는 말을 뒤로 하고

『으이구 누나는 못말려....』

서둘러 지혈하고 영양제와 간장약을 주사후 결박을 풀고 해독제 1.5ml를 정맥 주사하니 잠시후 부시시 일어나 사람들을 쳐다본다.

(네 팔자는 매년 한두번씩 그래야 돼)

첫 뽀치고는 크기도 괜찮고 피도 잘 나온 편이다.

집사람에게 청양 왕진이 있어 처가집엔 못가게 되었다고 하자 눈에선 환창만 보인다. 『오늘 같은 날 전화코드좀 뽑아 놓으면 손이 썩지!』

차근차근 왕진준비를 해 천안을 출발한 것이 5시 였는데 양쪽 차선에 통행 차량이 왜그리 많은지. 속도는 40km를 못넘고 추월도 못하고 (우리목장 빨자를때 손님이 저렇게 꼬리를 이었으면....), 온양, 유구를 거쳐 목적지에 내리니 8시30분이 지났다. 평소의 꼭 급절이 걸렸다. 구정의 덕담인사도 하는중 마는중 주인과 인사를 하고 사슴이 있는곳에 가보니 다른 녀석에게 흠씬 얻어 맞아 여기저기가 부어 있다. 털이 빠지고 낙각된 각관에서 흐른피가 얼굴에 붙어있고 가까이 접근을 해도 머리를 숙이고 풀기 죽은채 덤비지도 안고 그냥 처져 있을 뿐이다. 종록의 그 당당해야 할 위용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은채 널부러져 있다. 평소부터 서치라이트를 준비해둔 것이 여간 다행이 아니다. 급하게 물을 데워 준비해간 5% 포도당 1000cc, 50% 포도당 500cc, 아미노라이트 500cc, 하트만 2000cc에 감심제, 대사촉진제, 전해질, 지혈제, 항생제를 조심스럽게 정맥주사하고 상처난 곳에 소독까지 하고나니 자정이 조금 지났다. 그러나 바둥거리다 앞에 놓아둔 사료, 건초 물통만 작살냈다. (저 지랄이면 안되는데 낚새가 수상한데....)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는데도 주인께서는 푸 집한 저녁상을 준비해 주셨지만 입맛은 쓰기만 하다. (일어서지 못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쳐가고 있다) 밥상을 물리고 평소 사슴관리에 대해 이야기 했다.

특히 오늘의 경우를 설명해 주었는데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나이가 먹은 사슴은 젊은 사슴보다 일찍 낙

각이 되고 낙각된 사슴은 낙각전에 아무리 건 강하고 힘이 세며 극성스럽다 해도 낙각이 안 된 사슴에게는 속된말로 쪽도 못쓴다. 위용과 용감성은 낙각과 동시에 날아간다. 무기가 빠져 버렸으므로 낙각 안된 사슴에게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다. 나이 먹은 사슴은 녹각이 일찌감치 생기므로 (일찍 생긴 무기로) - 가을에는 다른 사슴을 공격해 다른 사슴을 상처도 입히고 병신이 되게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면서 천하의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주인에게도 뭘 모르고 덤비지만 낙각이 되면 양보라도 더 순해진다. (녹용을 신주단지처럼 위해야 하니까)

오늘같은 사고의 방지를 위해 낙각이 되면 평소 한 우리에 함께 살던 사슴도 철저히 격리 사육되어야 하고 (멋진 녹용과 두둑한 돈주머니를 위해선) 양질의 조사료와 고단백사료 (단백질 18% 수준) 콩을 급여함이 필수적이다.

가을철에 다른 사슴에게 유난히 공격적이고 난폭한 녀석일 수록 낙각시에 맥을 못추는 법이다. 세상만사는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될때가 있는법---등등.

대화가 마무리 될무렵 시계는 두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사슴 우리에 다시 가보니, 머리만 쳐들고 있을 뿐 아직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고 사슴이 못 일어났으니 천안 집으로 갈 수 없어 정월 초하루를 불가피하게 사슴주인 집에서 외박을 하게 되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제발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 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래야 너도 좋고 내 체면도 살테니---

밖이 소란스러운 느낌에 눈을 뜨니 날이 밝아오고 있어 정신차리고 얼른 사슴장에 어제 사슴이 자빠져 있던 곳에 눈을 주었으나 사슴이 보이질 않았다.

일어나 반대편 구석에 엉겨주춤하게 서 있다.

아직도 공포에 질려 풀이 죽은 채로 억지로 몸을 가누면서---

필자에게 그 꼴일망정 고맙기 그지 없는 모양이다.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남아 있지만 일어난 것 만으로도 황송하다.

날이 밝은 후 물이칸으로 간신히 몰아 넣고 어제의 처방을 반복해 투약하고 물과 건초와 사료를 주니 우물우물 먹는다. 그래 그래 그래 야지-----, 2차 투약을 하면서야 사슴장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주인집 주위의 조경도 눈에 들어온다. 필자도 정신이 든 것이다. 잘 가꾸어진 전형적인 시골 부자집이다. 그런데 사슴장 철조망이 군데군데 망가져 뚫어져 있다.

주인에게 빼있는 농담을 했다. 『저 뚫어진 철조망 구멍사이에 사슴의 저승사자가 쳐 놓은 울가미가 안 보이십니까?』

진료를 마친 시간이 10시. 감사함을 전하는 주인의 인사와 봉투를 받고 집에 돌아오니 오후 2시다. 집사람의 입은 여전히 한 뺨이 나와 있다.

청양에서 올때는 주머니에 이틀치 진료비로 두둑 했는데, 나온 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 내 주머니는 다시 빈 털털이가 되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하다. 이 덕분에 수의사 하는게 아닌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일준 올림.

<2-4월의 사슴 사양 메모 요약>

1. 사육장의 대청소와 소독, 절각장 정비
2. 낙각된 숫사슴의 격리 사육 및 낙각전부터 고단백의 사료 건초 공급
3. 숫사슴의 구충 (임신된 사슴은 분만 예정장소로 무리사육 분만후 구충)
4. 뇨석증이 있는 사슴의 치료 및 음경 표피염 치료
5. 부제병의 치료
6. 허약한 사슴의 분리 사육- 특히 나이 먹은 사슴

<필자 약력>

- 1951년 천안출생
- 서울성동고등학교졸. 건국대학교졸. 건국대 대학원졸
- 유일동물병원, 유일사슴목장 경영중
- 연락처 : (0417) 565- 5297